

(직업교육훈련동향 3-4-2)

일본의 새로운 직업 프리터(Freeter)

김태영

강릉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taeyoung@kangnung.ac.kr

우리 나라의 직업종류는 노동부에 따르면 13,700여개(99년 기준)로 분류되고 있으며, 미국은 22,000여개이며, 일본은 25,000여개로 조사되고 있다. 직업의 종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발달단계에 따라 그 종류도 전문화, 세분화, 첨단화의 다양한 양상을 띠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최근 일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 하나의 직업으로 프리터(freeter)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여 일본사회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프리터는 일본 젊은이들의 서구적 ‘개인주의’ 혹은 ‘사생활주의’의 특성을 함축하는 신종 직업이라 할 수 있다. 프리터란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로 영어로는 free time jobber이다. 처음 이 신종어가 사용될 때는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자유롭게 생활하고 돈이 떨어지면 또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자신의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일본사회에서 어떤 젊은이는 자신의 직업관이나 희망직업에 프리터라고 당당히 기입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엄연히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소위 기성세대들의 평생직업관의 신화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 프리터의 실태 및 현황

그렇다면 여기서 프리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자. 일본 노동성은 최근 발표한 『2000년판노동백서』에서 프리터의 나이를 15~34세,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남성의 경우는 취업지속연수가 1~5년 미만인 자, 여성의 경우는 미혼자로, 현재는 무직으로 파트타임(part-time)이나

아르바이트를 희망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프리터의 숫자가 82년 50만 명, 92년 101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처음으로 나와 일본사회에 충격을 던져 주었다. 『2000년판노동백서』에 따르면 프리터의 수는 151만 명(97년 기준)이라고 추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성은 61만 명, 여성은 90만 명이다. 즉 5년간 50만 명이 증가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20~24세가 82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25~29세로 35만 명, 15~19세가 20만 명, 30~34세가 14만 명이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35.4%, 대학·대학원졸이 17.5%, 전문대·단기대졸이 12.7%이다. 편의점과 수퍼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0%를 넘으며, 월평균수입이 10만~14만엔인 사람이 30%를 점하고 있다.

2. 「패러사이트 프리터」(parasite freeter)란?

특히 이 가운데 경제적으로 자립이 곤란해 가족과 동거하는 「패러사이트 프리터」는 80%에 해당되며 그 숫자는 120만 명이나 된다. 대졸자는 4명중 1명 꼴이며, 고졸자는 3명중 1명 꼴로 프리터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 신생어인 「패러사이트 프리터」(parasite feeter)란 어떤 의미인가? 패러사이트(parasite)는 영어로 기생이란 뜻이며,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일본식 합성어이므로, 「패러사이트 프리터」는 「기생하며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다. 가혹하게 말한다면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해 가며 사는 자립의식이 약한 「기생인간」이라 할 수 있다. 학교 졸업후, 저임금의 정사원으로 일하기 보다는 프리터를 선택해 파트타임으로 적당히 일해가며 인생을 즐기거나 정말 좋아하는 일을 탐색한다. 달라진 젊은 세대의 직업관·인생관이 낳은 특이한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모두가 좋아서 「패러사이트 프리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리쿠르트 조사에 의하면 불황으로 정사원으로 채용되지 않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좋은 직장이 나올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기다리겠다는 「비자발형」 프리터들이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직업학교를 다니거나 자격증을 따내는 등의 「자기실현형」도 전체의 25.3%에 달한다. 또한 장래에는 프리터를 그만두고 정사원으로 안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64.7%에 달하며, 프리터를 계속하고 싶다는 사람도 7%를 점하고 있다 (표 참조).

3. 프리터의 이점과 결점

프리터의 이점으로는 「시간이 자유롭다」 「좋아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많으며, 결점으로는 「보장이 없다」 「생활이랑 장래가 불안정하다」고 답한 사람이 많다. 즉 「프리터는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력서에 경력으로 쓸 수도 없으며」 「언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등 프리터 생활이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좋은 예라 하겠다.

이와같이 젊은이들의 의식변화는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다. 기성 세대들은 본인이 원하는 직장이 아니더라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또는 자기 힘으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참고 취직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취직에 대해 기성세대와 같이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희박해졌으며, 직장을 갖는 것이 의무라는 고정관념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급증하는 프리터 현상을 지켜보는 일부 일본의 기성 세대들은 「회사인간」의 삶을 거부하는 젊은 세대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비장함이 사라진 직업관에 경계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프리터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첫째는 경제적 풍요와 사생활을 중시하는 젊은이들 의식의 변화, 특히 직업의식의 희박화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장기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취업문 자체가 좁아진 데다 일본형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가 붕괴되는 등 급속한 사회·경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80년대 후반 일본경제는 버블경제의 붕괴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그 후 10년 넘게 계속되는 불황은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서 프리터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적고, 직업능력을 형성하는데 불리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이들이 장래에 일본사회의 중추가 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또

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잦은 전직이나 이직의 증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기술·기능 축적 등의 면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젊은이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고 전체적인 삶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로 프로그램이 요청되는 때이기도 하다.

4. 프리터(freeter)의 유형화

		자기실현 형	장래불안 형		프리터 계속형	그외	
			(비자발형)			(가정에들어가고싶다)	
금후의 직업생활		프리터를그만두고 정직에안주하고 싶다.			프리터를 계속하고싶다	그외	가정에 들어가고 싶다
정직을위한 구체적인대처		하고있음	하고있지 않음		-	-	-
프리터를 하고있는 이유		-	정 사 원 으 로 서 채 용 되 지 않 았 기때문에 또 는 정 사 원 으 로 서 채 용 되 어 질 전 망 이 낮 고 취 직 을 그 만 두 었 기 때 문 에		-	-	-
구 성 비	남녀 계	25.3%	39.4%	(11.3%)	7.0%	28.2%	(15.8%)
	남성	29.6%	52.2%	(13.9%)	2.6%	15.7%	(1.7%)
	여성	22.5%	30.8%	(9.5%)	10.1%	36.7%	(25.4%)

자료출처: 리쿠루트리서치 「아르바이트의 취로 등에 관한조사」(2000년)